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현장

- 롯데건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6-2공구) 현장 -

취재 | 최종덕 기자



무서워진 장마, 유비무환 정신으로

2.2km의 양북 8차선 대단면 터널인 신림2터널은 현재 시점부 가시설과 개착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350m 굴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전체 공정율은 17%로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지금까지 안전시공을 해왔던 기반을 가지고 앞으로도 선안전 후시공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안전시공이 한창이다.

이들의 선안전 후시공은 매일 같이 이루어지는 연례 행사지만 다가올 장마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하다. 한달전부터 장마철을 대비한 점검과 시설 설치 계획이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이를 기반으로 차곡차곡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계획에 의하면 기상청 예측에 따라 현장 자체적으로 수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중대상구간을 선정하였고, 전년도 결과를 피드백하여 새로운 단계의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혹시 있을 자연재해를 대비해 응급조치 상황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요즘 이상이변으로 장마가 무서워졌다고는 하나 이들의 철저한 대비가 있기에 이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터널의 안전지킴이 TSS

터널현장은 시공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 특히 인력관리나 차량관리의 소홀함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이 터널현장의 특성이다. 그러나 6-2공구 현장에는 터널 TSS(터널안전시스템)라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다.

TSS는 근로자와 차량이 터널 내를 출입할 때 송신기를 부착하여 터널 내에서 이동하는 이동경로와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차량과 근로자의 응급상황을 즉시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는 터널 내 20m 간격으로 설치한 송신기에 의해 관리되는데 근로자가 쓰러져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도 응급상황으로 보고 상황실에 바로 전달된다. 이러한 6-2공구에서 개발하여 현장관리에 도입되고 있는 TSS는 입소문이나 다른 현장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타 건설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TSS는 당초 THAM(터널시공위험도 관리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터널의 붕괴·붕락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터널시공위험도 관리시스템인 THAM이 개발되었고, 터널 내 근로자의 안전사고예방과 작업 중 위험상황이나 안전사고 시 비상 알림 시스템인 TSS가 THAM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TSS는 6-2공구의 안전지킴이로서 무재해 준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보편화된 감성안전

최근 우리나라 안전은 자율안전을 표방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실천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무재해 현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통제에 길들여져 왔고 지시형 관리에 의존해온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6-2공구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서울 구로와 가산디지털단지 그리고 광명에서 강남과 분당까지 노스톱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2014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강남순환도고속도로가 그 길인데, 서부간선도로와 강북의 내부순환도로를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총 38.4km의 도시고속도로다. 서울과 인근의 산업단지화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본 공사에는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오늘 찾은 곳은 6-2공구 현장으로 롯데건설에서 시공하는 12.4km의 민자 사업구간이다. 이곳에서는 가족이라는 안전 페러다임을 가지고 안전시공이 한창이다. 다가올 장마를 대비해 오늘도 현장 안전점검에 열을 올리는 것도 6-2공구 현장 안전에도 목적이 있지만 현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가족의 가족을 생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곳의 안전하면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근로자 가족이 아프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활동 전개"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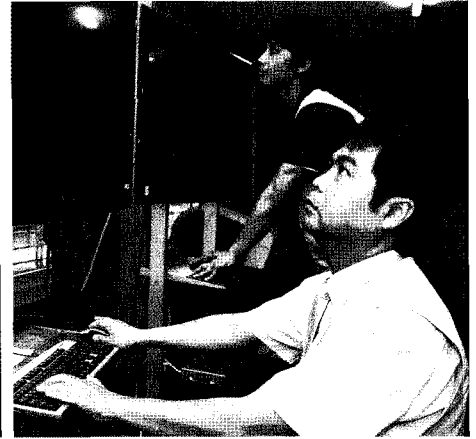
지고 있다. 바로 보편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감성안전 덕분이다. 감성안전은 근로자를 존중하고 소속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동참시키는 최근 유행하는 안전기법이다. 이러한 감성안전이 6-2공구에서는 이곳 현장 특성에 맞는 독특한 감성안전을 펼치고 있어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인지 건설현장 치고는 근로자들의 이직자가 거의 없어 인력을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장관리와 인력관리가 용이해져 지속적인 안전관리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달라진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장 환경도 변화를 주었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었고, 냉온수기와 샤워실은 기본이다. 각종 안전시설물은 색동파이프로 시각적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직원간의 부드럽고 단정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도 심어 주었다.

이처럼 최첨단을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근로자로 하여금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6-2공구 현장은 안전한 현장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2014년 3월의 준공 그날까지 안전시공을 지속할 것이다. ☺



허양규 현장소장

안전, 회사보다 내 가족을 위해 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현장에 안전시설이나 각종 제도와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안전시설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비용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본다 고 하지만 이는 회사보다도 근로자 가족에게 더 큰 손해와 불행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4월까지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도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1차적인 원인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안전관리 소홀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의 보여주기식 안전, 형식적인 안전에 편중되어 안전의 본질을 상실하여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잘 갖추고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지원해주고 독려해주는 일에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수은 안전차장

가족은 나의 희망, 안전은 가족을 지키는 지킴이

지난 현장에서 야간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일에만 전념하던 한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그분이 쓰러질까 걱정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그분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 현재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기 위한 한 가정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위한 한 가정의 처절한 몸부림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합치지 못하고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가정은 일을 해야 할 동기가 없어지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안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안전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보다 가족을 위한 동기입니다. 반대로 나로 하여금 가족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재해는 한 가정을 파탄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산재근로자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쁠 수 있는 가족, 이들이 행복해지려면 내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함을 절대 명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